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추수감사주일**

11월 24일(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대강절기간 및 성탄, 송년**

12월 1일(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12월 22일(주일) : 성탄축하예배 (25일 성탄절에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29일(주일) : 송년주일예배 (31일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2024.11.10 (577호)

비례판정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1/3)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33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0장 1-20

말씀선포 Sermon

양을 이리 가운데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11월 17일

최은숙

11월 24일

윤한진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머리 둘 곳 없는 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가실 길에 대한 예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오직십자가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과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에 환장하고 있었을 뿐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대형교회 기도제목을 들여다보면 모든 기독제목이 기복적인 기도제목들로 채워져 있음을 쉽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빼뚤어진 세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은 못해주실 망정 믿음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까지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수준이라고 성경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지하며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밝혀 줍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지 없는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입을 틀어 막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들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성숙해져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은 전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전부 너는 할 수 없으며 내가 가려는 길은 머리 둘 곳 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무력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